

教育政策 定立의 方向



慶南大 總長 尹 泰 林

I

교육은 어느 민족, 사회, 국가에 있어서나 지금까지 쌓아 올린 문화를 다음 世代에 전달하는 동시에 未來를 위해 젊은 世代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즉 교육은 未來志向의 이어야 한다. 따라서 教育政策의 巧拙은 그 나라 앞날의 國運을 左右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은 永遠한 국가 장래를 내다보고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한 후 수립되어야지 一身의 功名이나 位정자의 눈치를 살피거나 하는 등 일시적인 旣 의도가 조금이라도 개재해 있다면 그 정책은 후세에 이르러 마땅히 批判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권은 변해도 국가나 민족은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大學教育, 특히 入試에 관해서 여론이 分분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생각해 보자.

卒業定員制에 따른 탈락문제를 비롯해 大學문제는 대학당국에 一任하지 왜 文敎部가 세세한 문제에까지 일일이 介入하느냐 등의 논란은 大學에 대한 文敎當局의 關係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深化되어 가는 데에 대한 反발이다.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본래의 사명인 勉學에는 힘쓰지 않고 政治에 지나치게 關心을 갖고 曰可曰否하고, 거리에까지 뛰쳐나와 학생으로서의 本分을 忘却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음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더듬어 가면, 우리 나라 문교정책이 一貫된 소신을 갖고 밀고 나왔는가를 한번 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자유당 시절 한글전용 정책이 그랬고 平準化 정책이 그랬듯이 政策이 國家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정한 정책인지 의심할 점이 많았다.

卒業定員制도 그렇고 平準化 정책도 그렇다. 그 立案者가 政治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한, 나라의 장래를 위한 처사라면 모르거니와, 無意識의으로나마 位정자의 처지를 의식했다면 그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逆機能 反作用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가까운 예로 한글전용 문제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후퇴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한글을 소중히 해야 하고 한글을 써야 한다는 것에는 三尺童子라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나, 漢字文化圈에 속하는 우리 나라에서 한글만을 고집한 결과는 大學의 國文科를 나와서도 新聞 한 장을 제대로 못 보는 눈 뜬 장님의 世代가 아직도 남아 있고, 뒤늦게서야 이를 是正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犯함으로써 우리 나라 靑少年들의 文化水準을 얼마나 뒤떨어지게 했는가? 문제는 당시의 어느 高位層 子弟를

一流高校에 넣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것이란 卷說도 있지만 개인의 能力을 무시한 中·高校 平準化政策은 中·高校生의 學習能力을 低下시키고 外國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수한 소위 一流學校를 없애고 학교를 다같이 上位로 平準化시킨다면 모르거니와, 平準化는 下位平均으로 전락해 버리고 학생들의 의욕만을 減退시켰다.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큰 都市에서는 平準化 정책에 따라 우수한 高校도 생겨났지만 이는 막대한 施設과 그 학교 교사에 대한 특별 待遇 등으로 私立學校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에 발표한 大學入試 개선방안도 大學에 어느 정도 自律權을 주어 作文도 택할 수 있고 大學에 약간의 權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權威主義的 경향은 근본적으로 是正되지 않았고 卒業定員制도 勉學을 督勵하고 學閥騷亂을 막는 데는 效果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점수따기 경쟁으로 말미암아 재학중 가장 소중한 인간끼리의 만남, 情緒教育, 人格陶冶는 어느새 뒷전으로 후퇴해 버리고 점수벌레, 相互嫉視 등으로 타락해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30%를 더 뽑기 때문에 修學能力이 모자라는 출가 들어와 그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따라가지도 못하며 理解도 못하고 골치덩어리 癌의 존재라는 것을 一線學校 이외에서는 모르고 있다.

大學의 본질인 學問研究와 人格形成이라는 본래의 목표는 차차 사라져 버렸고 냉정한 對人關係, 무서운 경쟁 의욕만을 촉발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韓國 특유의 현상으로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어떤 人物이 될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II

教育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 국가를 존속·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어느 한 시대의 정치 권력에 눈이 어두워 이 근본 원칙을 깨뜨린다면 그는 국가장래를 해치는 죄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글 전용, 중·고교의 평준화 정책이 얼마나 우리 文化 발전을 저해시켰는가?

平準化 운운하지만 인간의 평등이란 貧富·地位의 高下, 財力 有無를 가리지 않고 法 앞에 똑같은 人間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지, 人間の 能力이 같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人間の 能力에는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교육은 그 사람 능력에 따라 그가 지니고 있는 潛在力을 제발시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같은 教室에서 한 시간만에 깨우치는 자가 있다면 5시간이 걸려도 깨우치지 못하는 자가 있듯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人間은 똑같다는 막연한 생각 밑에서, 인권 존중이란 美名下에 賢愚를 똑같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라지만 원숭이를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 구구셈 하나 모르는 아이는 아무리 컴퓨터로 셈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등교육은 받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국민학교에서도 낙제는 물론, 능력이 떨어진다면 4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쫓고 大學에 들어가 修學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부유층 권력층 자제라도 교사의 의견에 따라 실업학교에 보내거나 직장을 갖게 하지, 무리하게 大學에 넣지 않는다. 그것은 合理的인 思考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같이 권력층이라면 별별 말고, 부유층이라면 치맛바람을 일으켜 국민학교 교사를 때리기까지 하는 風土와는 다르다. 독일의 학부모들은 국민학교 교사를 절대로 믿는다.

우리 나라 고등학교 성적 內申制가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의 하나는 敎師의 독립성이 없다기보다는 學父兄들의 무식이 客觀性을 沮害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都鄙의 隔差는 제쳐 놓고서라도 자기 지식, 자기 학교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한다. 大學入學학력고사 시험장에까지 자기 학교 출신 학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별별 수단을 다 쓴다는 것은 입시 감독자들의 말을 들어도 짐작할 수 있다.

中·高校에서 能力別로 받을 편성하여 가르치는 일은 일선교육에서는 누구나가 그 필요성을 인식

하는 현상인데 이것조차 輿論이란 이름을 빌어 메스컴이 떠들어 대어 차별의식이니 열등의식을 조장한다고 하여 正常的인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도 우리 나라 특유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평준화 制度下에서는 진정한 人材가 배출되기 힘들다. 앞으로 격화되어 가는 국제무대에서 그들과 견주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나와야 할 판에, 이와는 정히 逆行되는 우리의 현실을 내다 볼 때 개탄에 앞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III

교육이 교육 원래의 방향을 잃고 항상 비위, 인기, 대중에의 영합만을 목표로 한다면 후세에 지탄을 받을 것이다.

실례를 하나 들자. 프랑스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우리 나라 大入學歷考査 모양 「바카로레아」에 합격해야 한다. 이것은 순전히 자격시험인 동시에 우리 나라 같이 효력이 1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학입학 정원의 감절이니 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 정원과는 관계 없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의 「아비트르」도 마찬가지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는 우리 나라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우리는 대입 학력고사를 자격시험으로 하지 않고 전에는 大入定員 몇 배인가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마저 폐지해 버리고 340점 만점에서부터 0점까지 다 합격자로 처리한다. 물론 0점짜리가 대학에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이는 년센스이다. 수험생에게 낙제자라는 낙인을 안 찍어 주려는 博愛主義 사상이다.

서구인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엄격하고 합리적이다. 반을 上, 中, 下로 나누어 편성하고 성적순으로 앉히는 것도 보통이다. 잘하는 학생은 월반도 시키고 못하는 학생은 시간을 늘려 더 가르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주기도 한다. 完全學 째이라는 것도 없고 이것을 미끼로 해서 돈을 버는 일도 없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지, 거짓도 태만도 없다. 사사로운 것, 특별한 사정도 통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된다.

능력주의를 택하지 않는 사회에는 停滯나 後進만이 있을 것이고 능력을 무시하는 평준화나 찾는 우리의 앞날이 어찌될 것인지 염려되는 바이다.

우리 나라같이 자연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人的 資源밖에 없다. 교육의 효과는 완만하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선진국이 융성·발전하는 이유는 제대로 습관성에 근거를 둔 교육을 한 결과이지 우리같이 정치적인 의도 여하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第一次世界大戰이 끝난 뒤 독일에서는 앞으로 국력 신장을 위해서는 초등교육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철저히 국민학교 교사를 우대하고 자질이 좋은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다. 한편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司法官의 질을 높여 엄격공정하게 非違公務員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두 가지 근본 정책을 채택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이른바 독일의 기적을 낳았으니 그 先見之明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독일의 국민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었기에 국민들의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이 길러졌으며, 이로 인해 독일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같이 形式的인 구호나 외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大學卒業定員제도 그렇다. 학생들의 정치적 테모를 막고 면학정신을 북돋우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졸업시의 탈락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접수벌레나 노이로제 환자로 만들고 탈락자들이 도리어 反政府 운동에 가담하는 수가 늘어나 逆效果를 나타냈으며, 大學에서의 修學能力이 없는 자까지 들어와 등록금 收入은 늘었는지 모르나 大學의 質을 低下시키고 말았다.

오늘날의 大學이 象牙塔의 존재가 아니고 大量生産, 大量賣出 등 평범한 凡才들만 산출해 놓는 企業과도 같이 되었고, 學問이나 敎養은 뒷전으로 밀려나 大學인지 工場인지 분간할 수 없으며, 敎授로서의 資質이 부족하더라도 定員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것은 大學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大學에서 學期를 단축시키고 여름放學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도 그렇다. 外國에서와 같이 따로 夏期學期制를 두어 별도로 學點을 따게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것도 아니고 學生들에게 소위 아르바이트 기회를 준다 하지만 가정교사도 不許하는 마당에 大學生을 日傭勞務者로 전락시켜 道路工事의 인부로 만들어 버렸다.

현재 外國에서는 講義日數를 연장해서까지 放學日數를 줄이려고 하는 판에 이에 逆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다.

大學 4年間 在學中의 學點數를 160에서 140으로 줄인 것은 이해 안 된다. 美國과는 달리 참고 도서도 많지 않고, 많은 학생을 一時에 가르쳐야 하는 우리 실정에서는, 또한 自發的인 학습보다는 레포트를 써 오라면 친구의 것을 그대로 베껴 오는 것이 대부분인 現實에서는 外國方式을 모방하지 말고 강제되라도 講義日數를 늘려야 하고 學點數도 줄여서는 안 될 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形的인 것을 따르는 우리 美國留學生의 의견만 존중하는 風土도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IV

大學自律에 관한 문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總·學長 등 管理責任者는 大學內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自由黨 罷免 案도 總·學長은 大學敎授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만큼 敎授들의 意見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물론 일부 敎授들이 派黨을 지어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도 있을 수는 있으나 설사 그렇다치더라도 이른바 大學의 知性人이란 사람이 無能하고 學者的 良心도 없는 사람을 파벌로만 만들어 낼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날 地方自治制 實施를 政府가 뒤로 미루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만,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가져온다면 서서히나마 이를 是正해 나가는 방도가 필요하듯이 一方的인 任命制는 大學의 自治를 無視하는 것이요, 뒷걸음치게 하는 정책이다. 大學의 自治, 自由는 일찍부터 독일에서부터 주창해 내려오던 것으로 權限이 맡겨지면 責任도 생기고 敎授나 學生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官權에 의한 일방적인 任命보다는 나을 것이다. 敎授가 文教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점만 보더라도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課外授業 폐지도 그렇다. 日本에서도 課外授業 亡國論이 나올 정도로 그 폐해가 큰 것은 알 수 있지만 대학생의 유일한 收入源인 課外授業을 끊어 놓고 家庭敎師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를 알고 들은 모르는 제도이다. 실지로는 高校에서 課外授業하는 것을 인정해 놓고 가정에서 이를 막는다는 것도 論理的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課外授業은 특수층이나 일부 부유층 子弟에 한정된 것이고 學力이 모자라는 아이까지 이를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中·高校, 大學에서의 出題가 課外授業을 받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출제를 하면 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가정교사 제도를 없앨 필요는 없다.

우리는 비단 교육뿐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을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것에만 눈이 어두워 탄 길로 들어가는 수가 많다. 大學入試도 그렇다. 붙는 자가 있으면 떨어지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몇 사람의 소수를 위해 大綱을 그르친다면 本末顛倒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도 내입예비고사에 떨어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들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이 많은 것도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떨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人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이다.

大衆을 이끌고 갈 사람은 소수의 지도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해 有爲의 인물을 썩히는 것은

그야말로 矯角殺牛이다.

우리 나라 사람의 知的 能力은 결코 남의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아니 뒤지기는 커녕 구미 선진국보다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早期教育도 우리 나라에서는 口頭禪으로 그쳐 있고 大局的으로 교육을 내다보는 見識이 아니고 그날 그날을 우선 급한 대로 땀질하는 식이다. 이레가지고서 어찌 百年大計니 하는 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다.

三權分立 외에 教育을 넣어 四權分立으로 하자는 말도 있다. 國家 장래를 위해 獨立獨行의 制度가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V

大學은 人間教育을 시키는 곳이지 立身出世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 말은 옳은 말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몇 천명씩을 한 학교에서 배출해야 하는 大學에서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의 본래의 목적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면 대학생들에게 불필요한 不安感, 嫌惡感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어야 한다. 쓸데없는 노이로제 환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人間教育의 첩경이다.

大學에서의 人間教育 요체는 많은 책을 읽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폭 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꿈도 있어야 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한다. 학점에 쫓기지 않고 탈락에 마음이 쓰이지 말아야 제대로의 人間教育이 될 것이고 社會에 나아가서도 제대로의 人間이 될 것이다.

大學은 人間을 만드는 곳이다. 꿈이 서려 있어야 하는데 현재 大學같이 꿈은 커녕, 삭막하기 그지 없는 學士製造工場에서는 人物이 나올 수 없다. 人生을 키우는 것은 꿈이다. *